

공동체 소식



예수 부활 대축일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4월 기도지향

- 김정원 베드로, 박말자 세실리아 가정
- 김정한 요한, 윤유나 글라라 가정

부활 인사

✝ 죽음을 물리치신 그리스도, 알렐루야!
 인간의 역사 안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의 부활이 ‘실재로’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날입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감격과 희열을 우리는 대축제의 전례를 통해 오늘 만끽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교만과 무질서로 죽음이 팽배합니다. ‘진도 여객선 참사’의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대축일 꽃봉헌 가정

평화의 모후 Cell, 양정희, 유경애, 이영민, 백문주, 배복선, 정지현, 박말자, 최은미, 주영길(이상 10가정)

맨하탄 공동체 야외미사

- 일시 : 5/3(토) 오전 11시
- 장소 : Tuttle Creek Lake

하느님의 자비 주일

교회는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정하여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기리는 날로 지냅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 세례성사로 새로이 태어나신 형제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 파스카 성삼일 전례를 위해 애써 주신 전례부와 성가대, 복사단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성경 쓰기와 Rice Bowl은 제대 앞 바구니에 개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Rice Bowl의 금액은 체크(혹은 캐쉬)로 변환해 주시면 교구 송금에 도움이 됩니다.
- 이번 주, 화/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다음 주일, 중심미사 후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전례 성가

| 시 작 | 예 목 | 성 체 | 마 침 |
|-----|-----|---------|-----|
| 130 | 129 | 135/175 | 137 |

주일미사 복사

| | 향 복사 | 시중 복사 |
|----|-------------|------------|
| 금주 | 어린이 복사 전체 | |
| 차주 | 안광민 (야 고 보) | 문호진 (안토니오) |
| | 정병훈 (보니파시오) | 안지영 (카타리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
|----|------------|--------------------------|
| | | 제2독서 |
| 금주 | 김주연 (세실리아) |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
| 차주 | 박혜정 (카타리나) | 안동현 (프란치스코) |
| | | 지은경 (리 브 가) |

애찬 봉사자

| | 다함께 |
|----|-------------------------|
| 금주 | |
| 차주 | 김주연, 김정애, 박희영, 이영민, 임지현 |

우리들의 정성

| | 참례인원 | 헌금 | 교무금 |
|-------------------------|------|------|------|
| 4/13 | 92명 | 321불 | 900불 |
| 유길수, 김화년, 정지현, 김정원, 문석찬 | | | |

예수 부활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4월 20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밤을 보내고 이제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빛 속에서 주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부활의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복되고 장엄한 미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성화해설

승리하신 그리스도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둠을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요한 20,1)
 우리를 위해 수난하고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아침 성무일도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덤에 갇히셨던 우리 임금님 군사가 엄중하게 지키었던만 장엄한 광채속에 개선하시어 죽음의 승리자로 부활하셨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 10,34-37-43

<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

화 답 송 : 

◎ 이 날 이 주 님 께 서 마 련 하 신 날 이 날 을 기 뻐 하 자 춤 들 을 추 자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스라엘에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
-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보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하고자. ◎
- 집짓는 자를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움기에 저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

제 2 독 서 : 콜로 3,1-4 <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 음 : 요한 20,1-9 <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쉐 마

“빈 무덤에 들어가보자”



빈 무덤을 본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자들에게 달려 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빈 무덤을 향해 달려 갑니다. 이들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놀랐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걱정하면서 달렸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란 개념이 어렵듯하게나마 있지만, 마리아와 제자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 두 명이 달려갑니다. ‘안식일에 누가 예수님을 옮겼다는 말이지? 마리아가 뭔가 잘못 보고 온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던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사실이란 말인가?’ 온갖 생각, 상상이 머릿속을 왔다갔다 합니다.

다른 제자도 그렇고, 베드로도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을 썼던 수건과 아마포만 놓여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이 무덤에 모신 것이 분명한데, 왜 비어있는 것입니까?

부활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거룩한 변모처럼 예수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짜잔’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짜잔’하시는 것입니까? 부활이 죽음을 물리친 승리임은 확실합니다. 승리는 환호성과 축하와 잔치가 있기에 왁자지껄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승리의 전리품도 승리의 환호성과 축포도 없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마저도 계시지 않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부활이 시작됩니다. 마리아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도 우리도 부활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여인들과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부활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아주 조용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알려주십니다. 휘황찬란해도 될 것 같은 부활마저도 깊은 침묵

과 고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제자는 기뻐했을까요? 부활을 알아들었을까요? 이른 아침 고요한 무덤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마음이 기쁨과 환희로 충만했을까요? 그 마음 그대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렸을까요? 아마 돌아와서 마리아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는 말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보고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방식인 ‘짜잔’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을 잠궈 놓고 있던 그 다락방에 ‘짜잔’하고 나타나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티베리아 호숫가에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구워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상처에 넣어보아야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전례적으로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내 삶에 ‘짜잔’하고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셔서 우리는 부활을 지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순시기를 제대로 희생과 보속을 하지 않아서 지금 기쁜 부활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새생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 ‘짜잔’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간 빈 무덤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무덤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계시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빈 무덤에 들어가 보세요. 새생명, 부활,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을 꼭 채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은 ‘짜잔’이 아닙니다. 부활은 고요한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빈 무덤으로 달려가 부활을 느끼시라.

- 예수회 김동일 신부 -

주춧돌

제 1 편 하느님 공경

제1-2장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4-5).

< 주석 >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신명 6.4).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 신앙 고백의 첫 문장이다. 흔히 첫 글자를 따서 히브리어로 ‘שמע’(Shema 들어라)라고 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적 가르침이다.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성경주석, 434. 455 참조).

하느님: 신명기의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하는 분이시다(성경주석, 455 참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삼중의 강조는 사람이 전 존재를 걸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성경주석, 455 참조).

< 설명 >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거나 서거나, 안에서건 밖에서건, “이스라엘아, 들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하느님 공경에 대한 성구를 잊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래서 문설주에도 적어 두고, 이마 성구갑에도 넣고 다니며,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 주어라”(신명 6,6-7).

< 교회 가르침 >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를 오직 우리의 최초의 근원이요 최종 목적이신 하느님께만 향하게 하고, 하느님보다 먼저 다른 무엇을 선택하거나 하느님을 다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도록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9항).

< 어록 >

- 최상의 존재는 단 한 분이여야 합니다. 곧 다른 동등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만일 하느님께서 유일하지 않으시다면 그는 하느님이 아닙니다(테르툴리아누스).

- 인생살이에서 교만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느님과 맞먹으려 합니다. 그러나 위험에 직면해야 비로소 그는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천주는 큰 임금(大君)이고 또 큰 아비(大父)입니다. 내 몸을 낳아준 부모도 천주와 비교하면 그보다 아래의 임금이나 아래의 부모인 것입니다. 비록 만 번 죽더라도 천주를 배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성 황석두 루카).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